

# 18세 고3 90% “총선 전 선거법 교육 필요”

## 진학닷컴 '18세 선거권' 설문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9명이 총선 전 선거법 교육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업 진학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학닷컴의 만 18세 고등학교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응답자 중 452명(89.5%)은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 관련 토론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

절반 넘는 57.3% “정치 관련 토론 수업 경험 없어”

5명 중 2명 “친구들의 정당·선거활동에 긍정적”

나’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288명(57.3%)이 “없다”고 했다.

‘친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한다면 어떨 것 같나’는 질문에 5명 중 2명인 205명(40.8%)이 ‘약간 긍정’, ‘매우 긍정’에 답했다. 부정 답변은 106명(21.1%)에 그쳤다.

그러나 자신이 ‘선거운동,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활동이 가능한데,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가 176명(35%)으로 긍정(163명, 32.4%)보다 다소 높았다.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63%(317명),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37%(186명)으로 조사됐다. 긍정 답변을 한 학생들은 ‘만 18세가 정치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238명)는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에 대답한 경우 ‘정치적 판단을 하기 다소 어려운 나

이다’(104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선거권 획득에 긍정적인 학생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부정적인 학생은 책임감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4월 15일 제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53만7000여 명(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교실수업 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전남도교육청 종합계획 발표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관계자,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02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 해 교원의 자발성과 동요성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현장 정착을 이룬 전남교육 공극의 목표인 수업혁신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해 도내 초·중등 교사 80명을 전문적학습공동체 핵심리더로 양성하고, 150팀 안팎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획형 연수를 운영기로 했다.

또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50여명을 선정해 1인1연구를 통한 ‘나도 강사, 나도 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지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

동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공동체 네트워크 및 학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여름방학 기간 중 나눔 한마당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회, 원탁토론회, 정책자료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원들의 전문역량을 키워 자발성과 열정을 불어넣고 수업혁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전남교육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교 혁신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학교와 교실이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안과 밖의 전문적학습공동체 1816개팀에 대해 총 2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전체 교사의 70%가 넘는 1만3000여명이 자발적 참여로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생들 월산동 ‘달피마을’을 혁신 ... ‘청년X마을 아이디어 해커톤 캠프’



전남대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광주 서구 월산동 ‘달피마을’을 혁신하는 ‘청년X마을 아이디어 해커톤 캠프’를 운영한다. 참여 대학생들은 마을 탐방을 시작으로 1일 동안 달피마을을 일원에 ‘해커톤 리빙랩’을 통한 마을진정 개선, 마을 활성화를 위한 행사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남대 제공>

##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치과 의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전원이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김병국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행한 2020년도 치과 의사 국가시험 결과 응시생 70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로써 치전원은 지난해에도 응시생 81명 전원이 합격해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이어가게 됐다. 김병국 치전원장은 “치과 의사 시험 100% 합격은 전국 합격률 97.3%인 것을 감안할 때 전남대의 치과 의료 인력 양성 수준이 뛰어난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재난안전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설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학교가 지역 ‘재난안전전문가’를 양성해 나갔다.

10일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사업단장 김충성)에 따르면 LINC+사업단은 최근 미래사회융합대학 유관중·배승용 교수(신산업융합학부 소방·에너지시스템 전공)와 협업해 ‘재난안전전문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재난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재난방재와 안전관리 ▲재난의 공학적 접근 ▲재난실무 및 현

장 문제점 ▲응급처치 실무 및 실습 ▲응급상황 대처법 실습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재난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은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됐다.

지난해 1차 교육에서 광주시도공사 관리직급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지난 3~7일에 펼쳐진 2차 교육에는 조선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24명이 참여했다.

이번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전체 교육생 58명 중 54명(93.1%)이 ‘재난안전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수업일수 단축 허용

### 교육부,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자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9일까지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어 171일만 수업하면 된다.

교육부가 수업일수 감축을 안내한 것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금과공고 ‘사이버침해대응전문가 자격증 프로그램’ 성과

금과공업고등학교가 동신대학교 융합정보보안학과와 협력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이버침해대응전문가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과를 내고 있다.

사이버침해대응전문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조치들을 이해하고 침해사고 발생 때 대응하는 전문가다.

금과공고는 사이버침해대응전문가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사이버침해대응전문가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쌓게하고 진로설계와 취업활동에 도움

을 주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동신대 융합정보보안학과 이동휘 교수와 정보보안 동아리 ‘호키스’에 소속된 5명의 대학생들이 29명의 금과공고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했다.

이중 교육 과정을 마친 21명의 학생이 사이버침해대응전문가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고, 14명이 최종 합격했다. 고등학교에서 합격증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이버보안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로 기록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